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개달음의 빛, 청자

천년비원을 품은 강진청자 이야기

신라말 탐진인 장보고는 중국 월주청자 기술을 강진에 들여온다.
이후 고려시대의 강진도공들은 고려청자를 천하제일의 비색(翡色)으로
승화 발전시킨다. 마침내 강진은 세계적인 청자의 성지가 된다.

월주가마 노비들

김시방의 장삿배는 양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명주를 향해서 내려갔다. 심지어 양주 개원사로 가지 않고 명주까지 가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일조가 가까운 흑수바다에서 만난 당구들의 공격으로 차질이 왔지만 그래도 양주에서 정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해시간은 엇비슷했다.

백수바다로 들어섰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장보고는 선실에서 일조 신라촌에 내린 여섯 명의 신라인들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리포에서도 당구들이 납치해간 어부가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데다 어린 시절의 일이었으므로 실감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당구들이 어선으로 위장해 신라의 바다까지 잠입해서 노략질은 물론이고 사람들을 붙잡아 노비로 팔아넘기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다.

김시방과 선장, 교대를 한 노잡이, 키잡이, 돛잡이들은 모두 곤하게 잠에 떨어져 있었다. 장보고는 선실을 나와 장삿배 갑판 위를 한 바퀴 돌았다. 밤바람이 차갑기는 하지만 매섭지는 않았다. 부드러운 기운이 얼굴을 스쳤다. 산동반도의 밤바람과는 감축이 확연하게 달랐다. 북두

칠성이 바로 머리 위에서 또록또록 빛나고 있었다. 심지는 뱃머리에서 북두칠성을 향해서 무사항해를 빌었고, 정년은 고물에서 공사들과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정년이 장보고를 보더니 다가왔다.

“성님, 잠이 안 오요?”

“공계 밖으로 나와부렀제.”

“지가 경계서는 시간인디 성님이 보여서 험 말이요.”

“한밤중에 뭘 얘기를 속닥거리고 있는가?”

“흑수바다에서 구출헌 사람덜 얘기허고 있었지라.”

“그랬는가? 나도 치가 떨어져 잠이 안 오드라고. 당구덜 악행이 이만 저만이 아니여.”

“공사덜 얘기로는 으쩍 때는 흑수바다가 무법천지라고 허요. 모두 성님 칭찬했지라. 함마트라든 큰일 날 뻔했다고.”

“미산포 별장 승내 쪼간 내봤는디 잘 되드라고. 글고 심지스님 기도 덕분이여. 스님이 시방도 기도허시고 겨신디 스님 역할이 솔찬허그 만잉.”

“우리가 직접 봤은께 믿어야지라.”

“성님, 새벽에 명주에 도착헌다고 험께 토막잠이라도 잡시다요.”

“그러세. 이러다가 하룻밤을 새불겄네.”

그러나 두 사람은 바로 선실로 들어가지 못했다. 심지가 기도를 끝내고 두 사람에게 오더니 합장했다.

“촌장님께서 얘기했습니더. 공사님덜이 당구덜을 물리쳤다고. 고맙습니더.”

“아이고메. 스님 기도 덕분이지라우. 우리덜 심만으로는 포도시 제압허기도 에러왔을 거그만요.”

“아닙니다. 두 공사님 실력으로 당구 배를 제압했다고 들었습니데이.”

“스님, 명주에서 바로 장안으로 올라가시는게라?”

“선장님 말씀인디 명주 천태산에 국청사가 좋다니께 몬자 거그부텀 가겠습니더.”

명주 국청사는 천태종의 본산이었다. 특히 그곳 일부 승려들은 <법화경>의 관세음보살에 의지하는 관음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면 반드시 들리는 절이 바로 국청사였다. 무사항해와 장사 등 원만성취를 기도하기 위해 한때 천태사라고 불렀던 국청사를 올라가는 것이었다. 심지가 장안 부근의 종남산 운제사를 가기 전에 왜 명주 천태산 국청사에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바꾸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김시방의 장삿배는 캄캄한 백수바다에서 “쿵!” 하고 암초에 한 번 부딪친 사고 말고는 무사히 명주 앞바다로 들어섰다. 먼동이 트고 있었다.

백수바다 위 동쪽 하늘에 붉은 놀이 부챗살처럼 번졌다. 장보고는 심지와 밤새 얘기를 주고받은 탓에 한숨도 못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갈매기들이 이른 새벽인데도 부지런히 날았다. 배를 따라 왔다가 먼 하늘로 사라지기도 했다.

김시방은 사뭇 흥분해 있었다. 탐진에서 명주까지 무사히 왔다는 안도감에 그런 것 같았다. 얼굴이 상기되어 술을 한 잔 마신 사람 같았다. 선원들도 들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밤안개 속에서 표류하고, 거친 풍랑을 뚫고, 당구들을 제압하고, 암초를 피한 끝에 도달한 명주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김시방이 스스로 진정하며 말했다.

“마지막이 중요하데이. 탐진에서 가져온 토기다발에 명주라고 쓴 것만 내리거래이. 돌아가는 길에 양주 장사꾼에게도 팔 기 있는기라.”

“예 촌장님.”

선장은 장삿배가 무사히 정박할 수 있는 목적을 찾았다. 갑판 위를 두 손을 휘휘 젓고 다녔다. 닻잡이 정수는 닻을 내려야 할 곳을 미리 정했다. 정년이 말했다.

“성님, 흑수바다는 꾸정꾸정허든디 여그 명주 바다는 바다밑까정 흰히 다 보여부요잉.”

“빨이 읊는 바다 같그만. 궁께 백수바다라고 허겼제.”

장삿배 옆에서 오락가락 하는 물고기들이 보일만큼 바닷물은 투명했다. 포구 목책 너머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장삿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시방이 말했다.

“우리 배를 지달리고 있는 명주 장사꾼들이데이. 장 공사는 포구에 몬자 내리그래이. 토기덜을 잘 지켜야 한데이. 여그도 좀도독이 많다 카이.”

“예, 촌장님.”

장보고와 정년이 먼저 배에서 내렸다. 그 다음에는 김시방의 추천서를 받은 심지가 내렸다. 명주 절도사에게 보낼 추천서는 김시방이 심지를 보증해주는 편지 형식의 문서였다. 심지는 명주에 오는 동안 정들었던 장보고, 정년과 헤어졌다. 선원들과는 이미 배에서 작별인사를 나누었는지 훌가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종남산 운제사에서 기도허고 귀국혈깁니다. 훗날 만남시데이.”

“잘 땡겨오시기를 빌게라우.”

정년의 눈가가 축축해졌다. 장보고도 아쉬워했다.

“스님이 눈에 선혈 거 같그만요. 인연이 되든 또 뵈겠지라우.”

“지도 공사님덜을 잊지 못할 거 같십니데이.”

심지는 합장한 뒤 거명거명 천태산 쪽으로 사라졌다. 선장은 선실 창고로 내려가서 명주 포구에 내릴 토기들을 점검했다. 양주로 갈 토기도 있기 때문에 선장이 분류해주어야 했다. 선원들은 선장의 지시 대로 토기를 밖으로 날랐다. 토기의 양은 엄청났다. 포구에 진열해놓고 보니 두 수레 정도는 되었다. 토기를 정리하는 데만 두어 식경이 지나 갔다. 명주 장사꾼들 중에는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탐진 토기를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장보고는 진열한 탐진 토기 둘레에 공사들을 세웠다. 돛잡이와 키잡이, 닻잡이는 칼을 들고 배를 지켰다. 정년은 김시방을 따라다니면서 호위 했다. 이윽고 김시방이 명주 장사꾼들에게 말했다.

“사고 싶은 탐진토기가 있으면 값을 먼저 말하십시오.”

그러자 장사꾼 모두가 손을 들고 마음에 드는 탐진 토기들을 먼저 가져가려고 경쟁했다. 한 장사꾼이 값을 부르면 다른 장사꾼은 더 높은 값을 제시했다. 그러는 동안 토기 값은 점점 더 올라갔다. 마침내 명주

장사꾼들은 허리에 찬 전대를 풀고 은전을 쏟아냈다. 장보고와 정년은 탐진토기의 인기에 깜짝 놀랐다. 진열한 탐진토기는 한 나절 만에 단 한 점도 없이 모두 팔렸다. 장보고가 정년에게 말했다.

“동상, 우리 탐진토기를 요로코롬 좋아 허는지 몰랐네.”

“공계 촌장님이 탐진토기를 양신 배에 실고 온갖 생고상을 험시로 왔겠지라.”

“생고상을 허고라도 크게 남는 장사라든 난중에 우리도 한 번 해보든 으쩍까?”

“아이고메, 성님. 뱍새가 황새 승내내든 가쟁이가 찢어지지라.”

“동상은 으째서 자신을 뱍새라고 생각허는가? 뱍새보담 어차든지 황새로 살아야제.”

김시방은 명주에서 목적을 달성한 듯 시종 흐뭇해했다. 선장에게 은전을 한 주먹 쥐어주면서 선원들을 교대로 명주 저갓거리로 보내 회식을 시켜주었다. 술을 마시는 것도 허락했다. 어차피 명주에서 하루를 더 보낼 셈이었던 것이다. 오후에는 김시방이 장보고를 불렀다.

“자계(慈溪)를 땡겨 올라꼬 허네. 장 공사는 여그 남아 설긴가?”

“아니지라우. 정년이 동상허고 촌장님을 따라 가불라요.”

“나야, 든든하니 좋데이. 두 사람 다 궁사 아이가.”

“근디 자계는 뭇 땀시 가시는게라우?”

“거그 가몬 상림호(上林湖)가 있는기라. 상림호 산자락에는 월주가마가 있꼬.”

“월주가마라고라우?”

장보고는 당은포에서 치소 향리와 김시방 간에 주고받은 얘기가 떠올라 되물었다. 당은포 치소 향리가 김시방에게 월주가마의 청자를 원했던 것이다. 장보고는 당은포에서 청자사발이나 청자그릇을 처음 보고는 호기심을 가졌던바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김시방은 말 세 마리를 빌려와 두 사람을 앞뒤로 세우고 자계로 떠났다. 자계 상림호는 명주 동북쪽 산자락에 있었다. 김시방 일행은 유시(酉時) 무렵에야 자계소에 도착했다. 월주가마는 황실 관요이므로 자계소 압아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다. 월주가마에서 생산하는 최상품은 황실이나 귀족에게 돌아가고, 중하품은 가마의 주인이 김시방 같은 교분이 두터운 상인에게 팔았다. 월주청자는 중하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평민은 사용하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고급스런 탐진토기가 명주 일대에서 아직도 인기를 유지하고 있을 터였다.

김시방은 직접 자계소로 가지 않고 자계소 앞에 있는 당전(堂前)으로 들어갔다. 당전은 관원들이 차를 마시고,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무회가 와서 춤도 추는 숙박시설이 갖추어진 연회장이었다. 김시방은 팔걸이 의자에 앉았고, 장보고와 정년은 의자 뒤에서 꼳꼳하게 섰다. 이윽고 자계소 압아가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다소 거만하게 들어왔다. 김시방이 일어나 압아를 맞이했다.

“또 왔습니다.”

“김 촌장, 반갑소이다.”

압아가 앉자마자 김시방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토우였다. 여자의 엉덩이와 젖무덤이 크게 강조된 다소 우스꽝스러운 토우였다. 토우 선물을 받은 압아가 두 손을 모아 이마까지 올리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토우는 탐진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서라벌에서 가져온 작품이었다. 장보고와 정년도 처음 보는 토우였다.

“소신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월주가마에서 나오는 중하품 청자라도 많이 샀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군관을 보내 지시하겠습니다.”

“압아 나리, 고맙습니다.”

압아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급히 처리할 공무가 있는지 김시방의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일어났다. 김시방도 압아를 붙들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월주가마 쪽으로 가 있었다. 압아가 나가자마자 김시방은 바로 말을 탔다. 장보고와 정년은 상림호 월주가마 가는 길이 초행길이었으므로 김시방을 뒤따랐다.

마침내 상림호 산모퉁이를 돌아가자 십여 기의 가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치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것처럼 가마들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장보고와 정년은 가마들의 숫자보다는 크기에 놀랐다. 가마 길이가 탐진 토기가마보다 네 배쯤 되었다. 봉통 아궁이 크기도 사람이 고개만 숙이고 들락거릴 수 있을 만큼 컸다. 정년은 자신도 모르게 “아!” 하고 탄성을 질렀다. 장보고도 마찬가지로였다. 탐진에서 토기가마가 가장 크다는 정 족장의 것보다도 두 배는 더 길고 커보였다.

봄철 가마작업이 끝났는지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김시방은 상림호 호숫가에 저택을 짓고 사는 청자가마 주인을 찾아갔다.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청자가마 주인은 김시방을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차 대신에 다짜고짜 고량주를 내놓았다.

“얼마 만이오?”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서라벌에 가서 볼 일을 다 보고 왔습니다이.”

“이번 가마는 신통찮습니다. 허나 중하품은 많으니 걱정 마시오.”

최상품은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김시방은 꿈도 꾸지 않았다. 청자가마 주인의 저택 거실을 장식하고 있는 청자항아리, 청자술병, 청자사발 등이 최상품이었다. 장보고의 눈에도 당은포에서 보았던 조악한 청자그릇들과는 전혀 달리 보였다. 김시방은 고량주에 약했다. 여남은 잔을 마시더니 몸을 비틀거렸다. 주인은 김시방에게 상림호가 보이는 사랑방을 내주었다.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밤은 저희 집에서 푹 쉬 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눈짓을 보내자 하인 두 명이 김시방을 사랑방으로 부축해 갔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하인은 장보고와 정년을 별채 방으로 안내했다. 날은 금세 어둑어둑해졌다. 하인이 별채 방의 침대를 정리해주고는 말했다.

“지털은 신라에서 왔그만요.”

장보고와 정년은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으디서 왔다고라!”

“지는 탐진이고, 촌장님을 모신 사람덜은 해남이고, 부안이그만요.”

장보고는 순간 짚이는 것이 있었으므로 사내의 손을 잡고 물었다.

“당구덜에게 붙잡혀 노비로 팔려온 것이 아닌게라?”

“맞그만요. 가마철에는 나무 허고, 그릇 맹글고, 불 때고 온갖 굵은일을 송신나게 허고 있그만이라우. 목심이 원망시러와라우.”

“어처케 해주믄 좋겠소?”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라우. 무시지도 씹고 짚고, 짓국도 마시고 짚고, 쪼각지도 묵고 짚어 미쳐불겠그만요. 여그 사람덜은 생것을 묵지 못헌당께요. 부모님을 보고 짚은 것은 말혈 것도 읍고라우. 우리 쪼깐 텔꼬 가주씨요.”

탐진에서 끌려왔다는 사내의 눈에 눈물이 그렇그렁했다.

“알았은께 얼렁 돌아가 있으쇼.”

그날 밤. 장보고와 정년은 청자가마 주인의 사랑방에서 쉬고 있는 김시방에게 갔다. 마침 김시방은 목이 타는지 일어나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다. 장보고가 “촌장님!” 하고 부르자 금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문을 열어주었다.

“촌장님, 여그 하인덜 말인디요, 실은 노비로 팔려온 탐진 사람도 있그만요.”

“알고 있데이.”

“근디 으째서 모른 체 허신당가요?”

“여그 가마 주인덜 중에서 나와 가장 친헌 사람인디 내가 이 사람덜을 빼가몬 쓰겼는가? 때를 지달리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그래이.”

“알고 겨셨그만요.”

갑자기 빗소리가 들려왔다. 정원의 나뭇잎을 때리는 빗소리였다. 잠시 후에는 천둥 번개가 쳤다. 장보고와 정년은 김시방이 다시 자리에 눕자 별채 방으로 건너왔다. 그러나 장보고는 탐진에서 온 사내의 선한 눈망울이 눈앞에서 어른거리 잠을 자지 못했다. 잠을 자기는커녕 뒤척대며 당구들의 악행에 치를 떨었다. 정년도 마찬가지였다. <계속>